

다문화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적합한 언어·문화자원 개발 방향 설정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Ⅳ):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과제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Tel : 02-3156-7158, e-mail : yskim@kwidmail.re.kr

요 약

세계화의 추세와 한국사회의 구체적 이주 양상을 고려할 때, 일반적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언어, 소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결혼이민자와 자녀가 소수언어, 소수문화에 대한 역량을 발전,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정책을 집중시키는 것이 적절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주요 외국어만이 긍정적 자질 내지 자원으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만이 활발한 현실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주의 동향을 고려할 때, 한국사회에는 중국과 베트남을 위시한 동남아 국가 출신자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이와 함께 문화질서에 있어서도 한국사회에서 주요 외국어로 인정받는 언어 이외의 소수언어, 소수문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주요 외국어 사용자로 알려진 이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소수언어, 소수문화 사용자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하며 주요 외국어를 기반으

로 한 역량을 구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언어, 문화적 요소간의 가치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 차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교정되기 어려움.
- 자녀 대상 모국어교육이나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활동 지원 등에 있어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언어, 문화적 역량에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음.

2. 정책의 추진방향

- 문화적 다양성이나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 형성을 위한 홍보에 있어 일반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소수언어, 소수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소수언어, 소수문화 배경을 지닌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일차적 목표 설정
- 자녀 대상 모어 교육 강사인력 양성, 교육 과정 개설 및 교육 콘텐츠 개발이나 언어·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및 취업 지원 등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소수언어, 소수문화와 관련된 과정, 교육 프로그램 우선 개발
 - 문화관광체육부 혹은 한-아세안 센터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접근이 어려운 소수언어, 소수문화에 대한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수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위한 별도의 사업 추진
 - 소수언어·소수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활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 도서관이나 학교 등에 다문화 코너, 다문화 자료실 등 설치
- 언어, 문화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해당 역량의 발전, 구현을 저해하는 장

애요인도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주요 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자료나 인적자원으로서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기술적 차원의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활동을 통해 가치를 구현할 기회도 거의 없는 소수언어, 소수문화: 언어,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환경 조성+ 실질적 활동 기회 제공 ⇒ 언어, 문화적 특수성이 개인적 자질,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가치 구현 가능성

3. 정책효과

- ☐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라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역량 강화
- ☐ 다양한 언어, 문화 자원의 가치 고르게 발전
- ☐ 소외계층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지원 방향 설정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